



최 신 판 례 예 규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부상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서면법인-3528, 2019.06.05

◆ 질 의

- 질의법인은 2009.7.21.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던 중,
 - 단체 소재지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기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조합의 매각 요청에 따라
 - 조합이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 후 기존 시설과 교환하기로 하고 '18.10.18. 교환을 등기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를 마침
- 양도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질의법인의 대표자로 되어 있으나, 질의법인은 매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와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보고 시, 양도부동산에 대하여 대차대조표(공익사업) 상 토지·건물 계정에 계상하여 왔음

질의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명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고정자산 처분수입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411(2009.4.8.)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

한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부상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마케팅 Tax Consulting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때에도 각자 지분비율로 안분된 금액만 법인의 손익으로 반영함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해당 공동사업장을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에 대해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해당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사전법령법인-89, 2019.06.11

◆ 질 의

- 주식회사 00000(이하 'A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개인과 공동으로
 - 서울 00구 00동에 위치한 기존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18층의 주상복합빌딩을 신축하는 사업을 하기위해 공동사업자로 등록함
- A법인과 개인은 부동산 필지를 2:1 비율로 취득하였고 공사대금 등의 조달을 위해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 본건 부동산에 대해 대주들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음

질의

-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의 자산·부채 및 수입·지출에 관한 법인의 세무처리 방법

◆ 회 신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해당 공동사업장을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에 대해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해당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와 그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서면상속증여-1346, 2019.06.12

◆ 질 의

- (질의1)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았는데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상속포기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 (질의3) 상속포기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누나들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인(「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함)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

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점(주사무소)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고, 본점의 이전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 판단해야 하는 것임

서면법인-3162, 2019.07.02

◆ 질 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사무소 또는 연구소를 두어 본점의 일부 인력이 잔류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76, 2017.03.16.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공장시설과 함께 이전하여야 하며, 사실상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 조직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 사실상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존재하는지 여부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 즉, 경영계획, 재무투자, 자산부채의 관리, 주요 회의 개최, 대표자 및 주요 임직원의 통상적 업무 수행, 회계서류 등 주요 서류를 일상적으로 기록관리 등이 수행되는 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존재하는지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